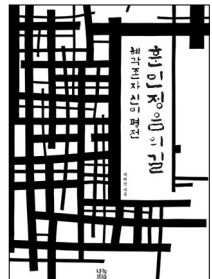


역사 뒤편길 물러난 신미 대사 재조명

훈민정음의 길

박해진 지음 | 나북 펴냄 | 3만 6천원



훈민정음 즉 한글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창제했다는 게 그동안 알려진 정설이다. 하지만 집현전 학사들의 도읍에 의문점이 제기되며 한글창제와 관련한 학설이 하나 더 추가 됐다. 한글은 조선 초 최고의 학승인 신미대사(信眉大師·1403~1480)가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며, 지난해에는 정찬주 작가가 충북 속리산에 파리를 튼 고찰 복천암(福泉庵)에 전해오는 '신미 대사 한글 창제설'을 소설적 허구를 곁들여 재구성해 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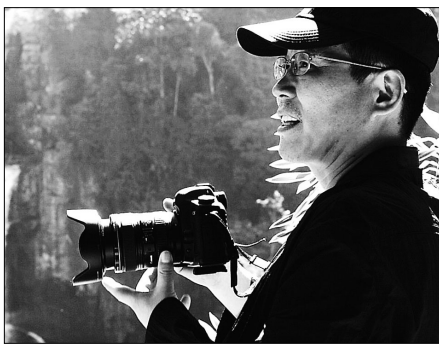
이 신미대사의 업적을 우연히 속리산 법주사에서 접하고 12년 동안 그의 궤적을 따라 쫓아간 결실을 하나의 평전으로 묶어낸 이가 또 있다. 박해진 고건축 작가(사진)다. 박 작가는 2002년 법주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공사의 인연으로 복천암과 신미대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미대사'를 화두로 그의 흔적이 있는 곳이면 천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가평 현등사, 양주 회암사, 오대산 상원사, 승주 송광사, 해남 도갑사 등 일일이 손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별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없었던 탓에 신미 대사 행장을 알고자 스님의 속가 집안인 영동 김씨 족보도 뒤졌고, 고문헌과 관련된 논문은 모조리 섭렵했다.

박 작가는 "이번 책에는 내가 상상해서 쓴 것은 전혀 없다. 모두 자료와 확인된 근거를 기반으로 가설 등은 없을 수 있겠지만, 신미 대사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이러 박 작가는 "나옹-무학-합허 스님으로 이어지는 신미 대사의 법맥을 밝히는 데만 4년이 걸렸다"며 "세종대왕이 신미 대사에 내린 '우국이세(祐國利世) 원융무애(圓融無礙) 해각존자(慧覺尊者)의 법호에 훈민정음 창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세조도 과실이 있는 임금이지만, 신미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전언해 사업에 공력을 집중한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작가는 "신미대사의 동생 김수온도 왕실 주판의 모든 불사를 기운으로 남게 조선훈 불교사의 지평을 넓혔다"며 "신미대사의 업적 이후 사실상 불전



신미대사 발자취 12년 취재한 결실 대사 법맥 밝히는 데만 4년 소요 법호에 훈민정음 창제의미 담겨져 1374개 주는 실증적 자료 확인됨

언해의 맥은 끊겨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작가는 "한글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책은 '훈민정음'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전 세계 문자의 우뚝한 봉우리인 소리문자 훈민정음(한글) 창제의 비밀과 교육,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 집현전 학자 중심의 훈민정음 창제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삭제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인 해각

존자 신미스님의 흔적을 남김없이 찾아내 균형을 잡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서, 15세기에 간행된 학자의 개인 문집, 훈민정음 연구서와 논문,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해 낸 자료를 작은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맞게 생생하게 풀어냈다. 1,374개의 주(註)는 실증적 자료 조사의 결과물이다.

책에는 세종이 총괄 기획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비밀, 창제 이후 최만리 등과의 갈등, 보안과 연구, 교육, 문종과 신묘와의 갈등, 수양대군과 조정의 충돌(계유정난, 사육신의 난), 세조의 불교와 유학을 아우른 보급과 확산, 예종과 성종대의 내리막길 등 훈민정음의 길을 일관적 있게 종합 정리돼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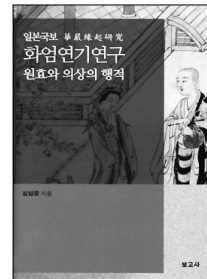
저자 박해진은?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1984년 강원일보 신춘문에 시부문에 당선됐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중근대 홍보실과 동방기획 PR부장을 거쳤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고건축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송례모, 창덕궁 인정전,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 수원 화성 팔달문, 여수 진남관 등 국보·보물의 해체 보수, 조사의 기록을 전담했다. 저서로는 단청 명장으로 활동한 한성성을 인더뷰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한석성·신영춘·김대벽·박해진 공저, 현암사, 2004), 비록평화로도 활동하며 동아일보 주최의 국수전 50년 역사를 정리한 〈국수산맥도 있다. 이외에도 사진집으로 〈선암사의 건축〉(오래된 궁궐, 새로운 궁궐) 등이 있다.

“원효·의상대사의 불교사상 ... 동아시아에 큰 영향 미쳐”

화엄연기연구

김일중 지음 | 보고서 펴냄 | 2만원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는 한국불교사에 너무나 유명한 선지식이다. 이른바 신라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대학원 유학시절 원효와 의상 대사의 전기와 설화를 소재로 한 〈화엄연기〉를 처음 접했다. 그때 저자는 “은 몸에 흥분과 전율을 느꼈으며, 왜 이 두 선지식이 화엄종의 조사로서 에미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연구의 첫 출발을 토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원효와 의상 대사의 불교 사상은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효 대사의 많은 저서는 일본 나라시대부터 전래돼 일본 불교 확립에 크게 공헌했으며, 이를 섭렵하고 참고해 큰 영향을 받은

학승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두 선지식을 항상 추앙한 나머지 〈화엄연기〉라는 에마키까지 제작한 가마쿠라 시대 뛰어난 화엄종 묘에도 그 중에 한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화엄연기〉에 묘사된 의상과 원효 대사의 전기와 설화를 〈삼국유사〉 〈송고승전〉 등과 비교 검토해 일본에 있어서 불교 설화의 수용과 전파, 상위점을 고찰했다. 또한 저자는 묘에 있어서 이 두 선지식의 사상적 영향관계를 한국자료와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 1부에서는 〈화엄연기〉의 성립과 조사전에 관해, 제 2부는 ‘묘에 추앙한 원효 대사’란 주제로, 제 3부에서는 의상 대사에 관련된 설화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원효와 의상 대사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초기 선종사, 경허당 연구 매진한 민영규 교수 탄생 1백주년 추모집

서여 사랑방 작은 인문학

민영규 지음 | 조흥윤 엮음 | 민족사 펴냄 | 1만 5천원



서여(西餘) 민영규(閔泳圭) 선생은 연세대 사학과서 정년을 맞고, 이후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탐사에 정진하다가 10년 전 돌아가신 동양사학자·한국학자·불교학자·서지학자·강화학자·민족학자이다. 일찍이 연희대학서 위당 정인보 선생의 제자로서 조선조 우리 학문의 정신인 강화학(江華學)을 만나고 그 성격과 틀을 바로 세웠다. 그의 학문의 정신과 방법은 방대하고 정밀하거나, 그의 주옥같은 논저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년 후, 선생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모임인 사랑방이 형성되었다. 1990년부터 6년에 걸쳐 선생은 초기 선종사의 바른 법맥과 신라·고려 불교의 성격 규명을 위해 중국 학술 탐사에 나서고, 이어 정신을 계승한 근대 한국 불교의 경허당 연구에 매진하였다. 서여사랑방에서는 선생의

연구 주제를 자연스럽게 토론하였고, 선생은 그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강연을 가졌다. 이 책은 그런 것을 제자 조흥윤(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이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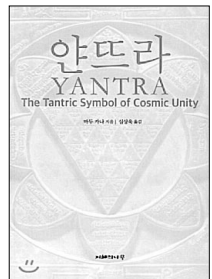
선생이 구도자의 자세로 탐구한 것은 우리 선(禪)불교와 강화학에서 추구하던 인간의 발견 내지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다. 중국·일본의 것과는 다른 우리 선불교의 바른 정신과 그 법맥, 의상-균-여-일연-매월당-경허로 계승·전개된 인간에 대한 가없는 연민과 불사의 정신, 이류중행(異類中行)의 길이 그의 주된 학문 주제였다. 그것은 강화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생은 강화학 250년의 내력을 “모진 압박과 극심한 곤궁 속에서 성취한 인간의 존엄과 그 발견의 역사”로 정리한 바 있다.

이 책의 글은 선생의 담론과 강연을 필요에 의해 정리한 것인데, 선생의 그런 학문 정신과 자세를 인연 있는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선생의 심혈인 글을 찾아보면 되겠거니와, 이 책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2015년 올하는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을 사모하고 그리는 이들이 기념하기 위해 펴낸 추모집이다. 김주일 기자

전통 사원 건축과 조각에 활용되는 ‘얀트라’

얀트라

마두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 9800원



얀트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트라 이미지와 컬러 얀트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으로 얀트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트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트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트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트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마두카나는 동서양 철학에 많은 지식을 갖춘 학

자이며, 아지트 무케르지와 Tantric Way를 같이 집필하였다.

얀트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끈달리니 요가에 따르면, 미묘한 몸의 정신적 중심과 상응하는 기하학적 구조와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서킷이다. 그러므로 몸은 기능적인 얀트라 중의 하나이다. 얀트라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 구성이다.

그러나, 기하학적 상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얀트라의 역동성을 파악해야 한다.

얀트라는 도형의 정밀성과 추상성에 대한 조화 안에서 증거된 힘을 특정한 배치로 표현한다. 얀트라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다. 얀트라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다. 얀트라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다. 얀트라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다.

콜라르나바(Kularnava)얀트라에서는 ‘얀트라는 만트라에 의해 혼이 불어넣어진다’고 말한다. 수행자가 영적 과정의 높은 단계에 이를 때 그는 특정한 얀트라를

이용한다.

적절한 만트라를 수반한 얀트라의 선택은 고도의 복잡한 과정이고 구루만이 구도자의 내면에 잠재된 상징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내면의 힘을 일깨워 극대화하고 신성을 향해 헌신하는 것은 신성을 일깨우는 과정과 함께 하나가 된다.

얀트라, 명상과 의례의 도구 상징 복잡한 형이상학적 구조 특징 170컷 이미지 제공은 이해 도와

그러한 행위는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영적 개화로서 보여 질 수 있다.

절제한 분석을 통한 힌두 얀트라 또는 힘-다이어그램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각각의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가 원래 형태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변형을 통한 일련의 연속적인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입체적 형상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변형은 빈두 또는 점,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 등 순환하는 특정한 선형적 특성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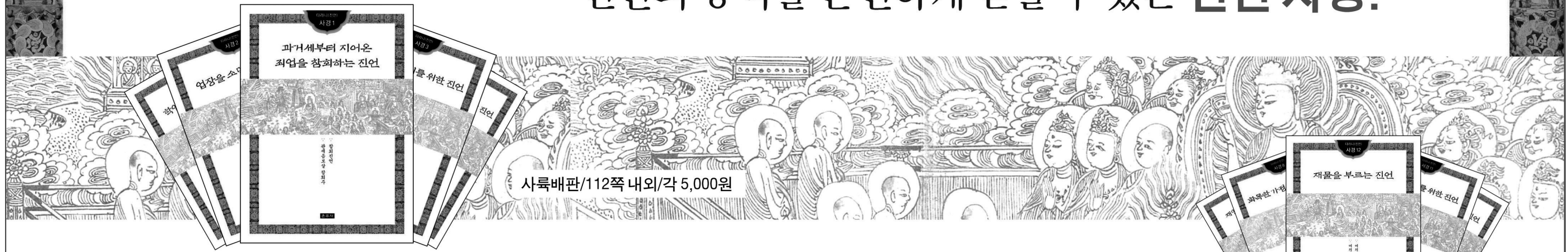
얀트라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구도자가 일정한 힘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고-형태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얀트라와 같은 형상에 전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각 형태가 나타내는 본질적인 힘을 깨닫거나 해방시키는 것과 같다. 얀트라의 활용에 대한 배경 원리는 만트라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각 얀트라는 만트라 음절을 들을 수 있는 힘의 시각적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각 얀트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힘-패턴을 포함한다.

김주일 기자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